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불안의 관계: 속박감에 의해 조절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검증*

최 현 주

울산대학교

신 혜 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와 같은 매개경로에서 속박감이 BJW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효과를 갖는지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남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BJW, 불안, 인지적 유연성, 속박감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유연성은 대학생의 BJW와 불안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속박감은 BJW와 인지적 유연성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속박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인지적 유연성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BJW가 강할수록 속박감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에서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JW가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속박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상담과 관련된 시사점과 본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 불안, 인지적 유연성, 속박감, 조절된 매개효과

* 본 논문은 2017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신혜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E-mail: ljshin@snut.ac.kr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며 학업, 진로, 대인관계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시류와 더불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끊임없는 선택이 요구되며,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정서영, 송미경, 2017).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학생들에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불안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측면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ielberger, Gorsuch, Lushene, Vagg, & Jacobs, 1983).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불안이 주로 위협과 관련되며, 위협, 불예측성, 불확실성을 수반한 상황에 의해 유발된다고 지적해왔다(권석만, 1996). 신체적 위협 못지않게 심리적 위협은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타인에 의해 취약점이 노출되어 자기 가치에 손상을 입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손재환, 2017; Beck, Brown, Steer, Eidelson, & Riskind, 1987). 심리적 위협과 불안의 경험은 특히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을수록 심화될 수 있는데(이종택, 김범준, 최인철, 박수애, 2008;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이를 토대로 국외에서는 타인과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반영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과 불안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소개되어오고 있다(Donat, Peter, Dalbert, & Kambel, 2016; Kamble & Dalbert, 2012; Peter, Dalbert, Kloeckner, & Radant, 2013). 사회가 자신 및 다른 구성원에게 정당하다고 신뢰할수록 개인의 노력에 대해 정당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돌아오리라고 기대하는 반면, 이러한 믿음이 약화되면 노력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불안감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 정치적 비리나 사회의 부정부패 등으로 적지 않은 성인 및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부조리하며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은하, 김수용, 2017) BJW와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그 자체로도 불안을 야기할 수 있지만, 제 3의 변인을 통해 불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정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은 불안의 원인이 된다. 세상이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신념으로 인해 사고 과정에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Beck, 1976). Ellis (2001)에 따르면, 비합리적이고 자기패배적으로 경직된 사고는 대표적인 인지적 왜곡의 양상으로 우울 및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불안의 보호변인으로서 이러한 경직성과 대조되는 개념인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지적 유연성은 어려운 상황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활용 가능한 대안을 찾는 능력을 가리킨다(송보라, 이기학, 2009; Dennis & Vander Wal, 2010). 인지적 유연성은 BJW와도 연관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BJW가 강할수록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합당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는데, 이는 상황을 수용하고 나아가 당면한 문제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은교, 안도희, 2017; Dalbert, 2009; Furnham, 2003; Taylor & Brown, 1988). 이를 바탕으로 BJW는 인지적 유연성을 매개로 하여 불안을 낮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BJW와 인지적 유연성과 더불어 개인의 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속박감(entrapment)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심리적 압박과 속박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신선화, 정구철, 2014). 속박감은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한 동기는 있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심리 내적 특성을 의미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 및 정서에 간혀있다고 인식하는 내적 속박감과 외부 상황 및 관계에 구속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외적 속박감으로 구성된다(Gilbert, Gilbert, & Irons, 2004). 속박감이 높은 개인은 통제 욕구는 높으나 통제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통제감이 신념(예: ‘통제할 수 있다’ 혹은 ‘통제할 수 없다’)이나 동기(예: ‘통제하고 싶다’ 혹은 ‘통제하고 싶지 않다’) 등을 바탕으로 개인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통제양식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성승연, 박성현, 2008), 속박감은 통제 실패 상황에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평가에만 관심을 둔다(이소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4).

이렇듯 속박감은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지각 자체를 측정하기 때문에 패배감, 수치심, 자기비난 등이 불안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Taylor, Gooding, Wood, & Tarrier, 2011). ‘비자발적 패배전략(Involuntary Defeat Strategy: IDS)’ 가설에 따르면, 속박감은 비자발적 패배전략을 역기능적으로 활성화시켜 도전과 공격적인 행동을 삼가고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과잉 지각하게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IDS 가설은 속박감으로 인해 BJW와 인지적 유연성 간 관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높은 수준의 속박감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려는 역량(capacity)을

제한하여, BJW가 증가하더라도 인지적 유연성의 증가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BJW와 인지적 유연성 간 관계가 속박감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적응에 대한 BJW의 영향력이 개인의 내외통제성(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수준에 따라 달라졌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김은하, 김수용, 2017; Dalbert, 2001; Sutton & Douglas, 20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박감은 비교적 일관된 개인의 통제양식과 달리, 통제하기를 원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지각이라는 점에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속박감이 내외 통제성을 포함한 통제양식과 마찬가지로 BJW와 적응적 행동(인지적 유연성) 간 관계에 관여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BJW가 불안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고 인지적 유연성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BJW와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속박감의 역할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림 1]에 변인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지적 유연성은 BJW와 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속박감은 BJW와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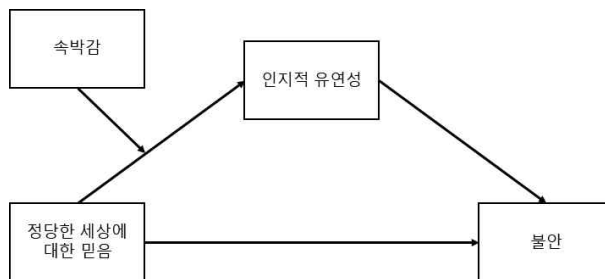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3. BJW가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속박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과 불안

BJW는 사회가 자신 및 다른 구성원에게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정도로 측정되는 인지적 변인이다(Adams, 1965; Furnham, 2003; Lerner, 1977; Lucas, 2009). Lerner(1977)는 자신이 제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가설'(just world hypothesis)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상황이 합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안정감을 갖게 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제까지 밝혀진 BJW의 대표적인 순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다(Donat et al., 2016). 하나는 정당함에 대한 신뢰의 기능(trust function)으로, BJW가 강한 사람은 정당한 행위를 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돌아오리라고 예상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당하게 행동하는 일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게 하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한다는 것이다(정은교, 안도희, 2017; Dalbert, 2009). 또한, 타인으로부터도 대체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며, 타인을 신뢰하는 편이다(Dalbert, 2001). 다른 하나는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고 일컬어지는 적응기능으로, BJW가 강할수록 부정적인 상황도 정당한 결과라고 수용하는 합리화의 성향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 이는 문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도움으로써 심리적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정은교, 안도희, 2017; Dalbert, 2009; Furnham, 2003). 다시 말해, BJW가 개인의 인지도식을 긍정적으로 편향시킴으로써 문제해결 및 적응을 증진시킨다고도 볼 수 있다(Taylor & Brown, 1988).

국외 연구에서는 BJW가 강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학교생활 중에 훨씬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성별, 성격, 학교 특성 등의 변인을 통제한 뒤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Donat et al., 2016; Kamble & Dalbert, 2012; Peter et al., 2013). 예컨대, Donat와 동료들은(2016)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BJW가 강한 학생일수록 소화불량 등의 신체화 증상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낮았던 반면, 학교에서의 즐거운 경험 및 긍정적 태도를 보고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BJW와 불안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BJW는 아동기부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점진적으로 형성되며, 비교적 쉽게 변하지 않는 성격적 특질로 알려져 있다(Khera, Harvey, & Callan, 2014; Lucas, Alexander, Firestone, & Lebreton, 2007). 따라서 BJW의 수준을 단기간에 변화시키기에 앞서 BJW와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매개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예방, 완화할 수 있는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김은하, 김수용,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BJW와 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복잡한 문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며(임선영, 권석만, 2012; Martin & Rubin, 1995), 융통성 있게 사고함으로써 문제를 기존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Thurston & Runco, 1999). 기존 연구들은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사고하지 못할 경우, 불안 수준도 높아져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고했다(김완일, 2008; 허심양, 2011; Dennis & Vander Wal, 2010;

Fresco, Williams, & Nugent, 2006; Johnco, Wuthrich, & Rapee, 2013). 예컨대, 머리카락 뽑기, 병리적 피부 뜯기, 손톱 물어뜯기와 같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강박 행동이 인지적 유연성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cazio & Flessner, 2015). 또한,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인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인지적으로 경직되어 현실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유연성(inflexibility)과 방어적 특성을 보였으며(Borkovec & Newman, 1998),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유능감이 낮았고 회피적이며 수동적인 대처양식을 보였다(채은옥, 이영호, 2008). 이와 대조적으로,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위협적인 상황(예: 거미, 건물 붕괴)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각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ildebrandt, McCall, Engen, & Singer, 2016). 이러한 결과들은 인지적 유연성이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BJW와 인지적 유연성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지만,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BJW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문제중심의 대처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이 높다(정은교, 안도희, 2017; Dalbert, 2009; Furnham, 2003; Taylor & Brown, 1988). 반면, BJW가 약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부당한 처우 때문이라고 생각하므로 수용하기보다는 거부하기 쉽고 결국 회피하거나 경직된 방식으로 사고하며 대처하게 된다. 나아가, 타인에 대해서도 불신과 적대감을 느끼기 쉬우므로 쉽게 우울이나 불안감에 빠져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은하, 김수용, 2017; Dalbert, 2001; Lucas, 2009). 이는 BJW가 약한 경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통제감을 유지하고 문제를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며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내고자 하는 인지적 유

연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BJW가 통제감과 안전감의 수준을 높여주어 탐색적이며 창의적인 사고 및 행동을 촉진시켰다는 국외연구(Fredricson, 1998)가 있으며, 인지적 유연성이 BJW와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다는 국내연구(신혜진, 2018)가 최근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JW가 강한 대학생은 인지적으로 유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속박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속박감(entrapment)은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나 이것이 제한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동물행동학에서 '저지된 도피(arrested flight)'라 칭하는 개념과 유사하다(Taylor et al., 2011). 속박감을 경험하는 개인은 시선 회피, 외부 환경 탐색행동의 저하, 안면 표정의 억제 등 우울 진단 집단과 상당히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Dixon & Fisch, 1998), 실제로 속박감은 우울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Gilbert, 2001).

속박감은 무력감(hopelessness)이나 패배감(defeat), 통제감(sense of control)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무력감은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반복적인 시도가 좌절되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동기가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속박감은 현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동기는 높으면서(활성화된 투쟁욕구)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할 때 나타나는 정서를 의미한다(이종선, 조현주, 2012; Gilbert & Allan, 1998).

또한, 속박감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목표나 지위의 획득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우선으로 하는 패배감과 구분된다. IDS 가설에서는 상황에 대한 초기 평가를 통해 패배감이 먼저 발생하고, 이러한 패배 경험이 극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속박감이 나타나며, 속박감이 선행한 패배감을 공고화하여 역기능적인 비자발적 패배전략이 만성화되는 것으로 본다(Taylor et al., 2011). 비자발적 패배전략(involuntary defeat strategy)이란 실패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서기 보다는 도피나 복종 등을 통해 주어진 실패나 손실을 받아들이는 행동 패턴을 일컫는다(Sloman, 2000). 비자발적 패배전략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되면 개인은 승산이 없는 싸움으로부터 물러섬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면이 전환되어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비자발적 패배전략을 멈추게 된다. 그러나 비자발적 패배전략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개인은 실패를 예상하면서도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여 패배감-속박감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Zuroff, Fournier, & Moskowitz, 2007).

마지막으로 속박감은 상황의 직접적 통제보다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Gilbert et al., 2004), 통제감과도 구분된다. 통제감은 “통제를 갖고 있다는 지각 혹은 그러한 통제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성승연, 박성현, 2008, p. 113)”을 의미하며 개인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통제양식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 사용된다. 속박감은 낮은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와 높은 통제욕구(desire of control)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 통제양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요약하면, 속박감은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하나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지각할 때 나타나는 정서로 역기능적인 비자발적 패배전략의 부산물이다. 이는 개인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고 있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표식(marker)이며, 실제로 정신건강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Kendler, Hettema, Butera, Gardner, & Prescott, 2003; Taylor et al., 2011). 속박감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경

로를 매개했고(김대현, 2016; 신혜원, 김은정, 2017), 수치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임, 강민철, 이윤희, 2017; Gilbert, Cheung, Irons, & McEwan, 2005). 속박감과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은 대학생의 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으며(천숙희, 2012), 외적 속박감은 대학생의 불안 및 무쾌감증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이종선, 강민철, 조현주, 2012; Gilbert, Allan, Brough, Melley, & Miles, 2002). 또한, 자해경험이 있는 입원환자의 불안 수준과도 관련이 있었다(Rasmussen, Fraser, Gotz, MacHale, Mackie, & Masterton, 2010).

그렇다면 BJW와 인지적 유연성의 결여가 불안을 야기하는 과정에서 속박감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JW는 생애 초기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성격적 특질에 가깝다(Khera et al., 2014; Lucas et al., 2007). 반면 속박감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지각이라는 점에서 상황-특수적 변인으로 분류된다(Levi, 1982; Teger, 1980). 속박감을 유난히 잘 느끼는 사람(entrapment-prone individuals)이 있다기보다 자신이 상황에 투여한 비용 등 외부 요인에 대한 평가에 따라 속박감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예: Brockner, Rubin, Fine, Hamilton, Thomas, & Turetsky, 1982). 이는 BJW가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속박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속박감은 정상적인 인지기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Brockner & Rubin, 1985). 선행연구에 따르면 속박감은 부정적 측면만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반추(rumination)와 관련이 깊었다(Teismann & Forkmann, 2017). 반추가 인지적 왜곡을 심화시키고 문제해결 능력을 방해하여 사고를 경직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오수연, 박기환, 2014), 속박감은 인지적 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BJW가 강한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속박감을 많이 느낀다면,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이 크다. 반면, 속박감이 낮은 경우에는 BJW를 바탕으로 인지적 유연성을 촉진시키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BJW와 속박감의 상호작용이 인지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내외통제성(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이 BJW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은하, 김혜림, 2015; Furnham, 2003; Sutton & Douglas, 2005). 내적 통제감이 높은 사람은 BJW가 취약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부정적 정서에 빠지기 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김은하, 김수용, 2017; Dalbert, 2001; Sutton & Douglas, 20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박감은 낮은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과 높은 통제욕구(desire of control)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특수적 변인이다. 따라서 속박감을 관리하는 것은 통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신혜원, 김은정, 2017). 이에 본 연구는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속박감과 BJW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과 경남 소재 4개 대학의 학부생 367명이 참여하였다. 교양 및 교직 10개 강좌의 수강생 중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설문지 배포되었다. 수업 시간을 통해 설문지 배포, 응답, 수거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혹은 참여점수(extra credit)가 제공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 39부를 제외하고 32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160명(49%), 여학생 168명(51%)으로 성별에 따라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50명(15%), 2

학년 108명(33%), 3학년 85명(26%), 4학년 85명(26%)으로 저학년(1, 2학년)과 고학년(3, 4)의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128명(39%), 자연계열이 21명(6%), 공학계열이 132명(40%), 조형 및 디자인계열이 30명(10%), 기타가 17명(5%)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 척도

BJW는 김은하와 동료들(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이 Lucas와 동료들(2007)이 개발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을 한국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어판 BJW 척도(The Korean version of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로 측정하였다. 한국어판 BJW 척도는 개인 자신에 대한 믿음(BJW-self)과 일반적인 믿음(BJW-others)의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는데, 개인 자신에 대한 믿음(BJW-self)은 사회가 자신에 대해 정당하다고 믿는 것이며, 일반적인 믿음(BJW-others)은 세상이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를 가리킨다. 총 16문항 중 BJW-self는 8문항으로,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며 BJW-others 역시 8문항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소속된 세상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정도가 높음을 가리킨다. 김은하 외(201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Beck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eck과 동료들(Beck, Epstein, Brown, & Steer, 1988)에 의해 개발된 불안증상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석만이 번안한 한국판 Beck 불안척도는 '전혀 느끼지 않았다.' 0점에서 '심하게 느꼈다.'의 3점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Kwon, 1993). 예시문항은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땀다.'와 같이 불안과 관련된 신체 증상의 경험이나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와 같은 심리적 근심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92로 나타나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인지적 유연성 척도

인지적 유연성은 Dennis와 Vander Wal(2010)이 개발하고 허심양(2011)이 번안한 인지적 유연성 척도(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CFI)를 사용하였다. CFI는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다.' 등과 같이 상황에 대한 대안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대안요인(Alternative subscale) 11문항과 '나는 상황과약을 잘 한다.'와 같은 통제요인(Control subscale) 8문항의 2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일부 문항은 역채점 하여(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나는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Dennis와 Vander Wal(2010)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90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89로 높은 수준이었다.

속박감 척도

속박감은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하고 이

종선과 조현주(2012)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를 사용하였다. 속박감 척도는 자신이 가진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각하는지를 묻는 내적속박감과 관련된 6문항과 당면한 대인관계나 문제에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지를 묻는 외적속박감과 관련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나는 내 안에 갇혀 버린 것 같다.', '나는 내가 짊어진 의무들에 갇혀버린 것 같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속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1, 외적 속박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2였으며, 전체 속박감의 신뢰도 계수는 .95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했다. 주요 변인의 분포와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계수를 검토하였으며,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BJW, 인지적 유연성, 속박감, 불안은 아직까지 그 관계가 이론적으로 확고히 정립되거나, 경험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인지적 유연성이 BJW와 불안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연구문제 1)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다음 속박감이 BJW와 인지적 유연성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연구문제 2), 나아가 BJW와 불안 간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가 속박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연구문제 3)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문

제 2와 연구문제 3은 SPSS Macro를 활용한 Hayes (2012)의 PROCESS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5,000개의 표본에 95% 신뢰구간을 적용한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각기 4점에서 7점까지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고 있어, 회귀계수 및 조절효과 계수 해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모든 변수들은 Z점수로 표준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BJW는 인지적 유연성과는 정적 상관을($r = .38, p < .001$), 불안과는 부적 상관을($r = -.31, p < .001$)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JW가 높으면 인지적 유연성도 높으며, 불안은 낮을 것임을 의미한다. 인지적 유연성은 불안과 부적 상관을($r = -.25, p < .001$) 보였는데, 이는 인지적 유연성이 높아지면 불안은 낮아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속박감의 경우, BJW($r = -.42, p < .001$) 및 인

지적 유연성($r = -.40, p < .001$)과 부적 상관을, 불안과는 정적 상관을($r = .62, p < .001$)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속박감이 높을수록 BJW나 인지적 유연성은 낮아지고, 불안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통계 가운데 불안 평균이 .5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Marues 등(2010)이 제안한 진단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점수 분포는 mild anxiety(8-15점)가 114명(32%), moderate anxiety(16-25점)가 56명(16%), severe anxiety(30점 이상)가 22명(6%)으로, 전체 대상자 중 54%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불안을 보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arques, Chosak, Simon, Phan, Wilhelm, & Pollack, 2010).

매개효과 분석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BJW와 불안 간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표 2). 그 결과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b)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b = -.041, 95\% CI [-.078, -.0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BJW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과 관계가 있었고($B = 0.453, p < .001$), 높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은 낮은 수준

표 1. 주요 변수 상관 및 기술통계

변인	1	2	3	4
1. BJW	-			
2. 인지적 유연성	.38***	-		
3. 불안	-.31***	-.25***	-	
4. 속박감	-.42***	-.40***	.62***	-
<i>M</i>	3.28	4.94	.51	2.26
<i>SD</i>	.61	.73	.46	.90
왜도	.04	.16	1.50	.42
첨도	.50	-.02	2.30	-.77

*** $p < .001$

표 2. BJW과 불안 간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인지적 유연성			종속변수: 불안		
	B	S.E.	t	B	S.E.	t
BJW	0.453	.058	7.689***	-0.186	.041	-4.557***
인지적 유연성				-0.087	.034	-2.577*
경로	매개효과 계수 (b)	S.E.	95% 신뢰구간 (CI)			
			하한값	상한값		
BJW → 인지적 유연성 → 불안	-.041	.017	-.078	-.010		

* $p < .05$, *** $p < .001$

의 불안과 관계가 있었다($B = -0.087, p < .05$). 또한, 불안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의 영향력을 통제 한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BJW는 낮은 수준의 불안과 관계가 있었다($B = -0.186, p < .001$). 이를 종합해 보면 인지적 유연성은 BJW와 불안 간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BJW(독립변수: X)와 인지적 유연성(매개변수: Me)간 관계가 속박감(조절변수: Mo)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연구문제 2), BJW(독립변수: X)와 불안(종속변수: Y)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매개변수: Me)의 매개효과가 속박감(조절변수: Mo)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연구문제 3) 알아보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우선, 연구문제 2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BJW(X)과 속박감(Mo)이 인지적 유연성에 미치는 주효과는 각각 $B = .297(p < .001)$, $B = -.258(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BJW와 속박감의 상호작용 항($X \times Mo$)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230, p < .01$). 속박감의 조절효과를 구체

표 3. 속박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 인지적 유연성			종속변수: 불안		
	B	S.E.	t	B	S.E.	t
BJW (X)	0.297	.062	4.812***	-0.186	.041	-4.551***
속박감 (Mo)	-0.258	.042	-6.156***			
X × Mo	-0.230	.062	-3.691**			
인지적 유연성 (Me)				-0.088	.034	-2.581*
속박감 수준	조건부 간접효과	S.E.	95% 신뢰구간 (CI)			
			하한값	상한값		
낮은 속박감 ($M - 1SD$)	-.044	.018	-.084	-.012		
중간 속박감 (M)	-.026	.012	-.055	-.006		
높은 속박감 ($M + 1SD$)	-.008	.009	-.034	.005		

* $p < .05$, ** $p < .01$, *** $p < .001$

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속박감 수준 별로 BJW가 인지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 속박감 평균(M)으로부터 1 표준편차($1SD$) 낮은 집단을 '낮은 속박감 집단($M - 1SD$)', 속박감이 평균인 집단을 '중간 속박감 집단(M)', 속박감 평균(M)으로부터 1 표준편차($1SD$) 높은 집단을 '높은 속박감 집단($M + 1SD$)'로 설정하고 각 집단에서 BJW가 인지적 유연성을 예측하는 회귀계수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속박감이 낮은 집단(낮은 속박감; $M - 1SD$)의 회귀계수와($B = .529, t = 5.913, p < .001$), 속박감이 보통인 집단(중간 속박감; M)의 회귀계수는($B = .297, t = 4.899,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속박감이 높은 집단(높은 속박감; $M + 1SD$)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058, t = .764, p > .05$). 이에 대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속박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BJW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유연성도 증가하는 정적 관계가 나타나지만, 속박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속박감의 조절효과가 [BJW → 인지적 유연성 → 불안]의 경로에도 영향을 미쳐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Bootstrapping 분석을 통한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 b)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b = .020, 95\% CI [.006, .04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속박감이 평균에 비해 1 표준편차 낮거나 (낮은 속박감; $M - 1SD$) 평균(중간 속박감; M)일 때, 조건부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속박감 수준이 높았을 때(높은 속박감; $M + 1SD$) 조건부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034$ 와 $.005$ 로 0이 포함되어 조건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속박감 수준이 낮거나 평균일 때에는 높은 수준의 BJW가 높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되며, 높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이 낮은 수준의 불안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속박감 수준이 높을 때에는 BJW와 인지적 유연성 간 정적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BJW와 불안 간 관계에 있어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도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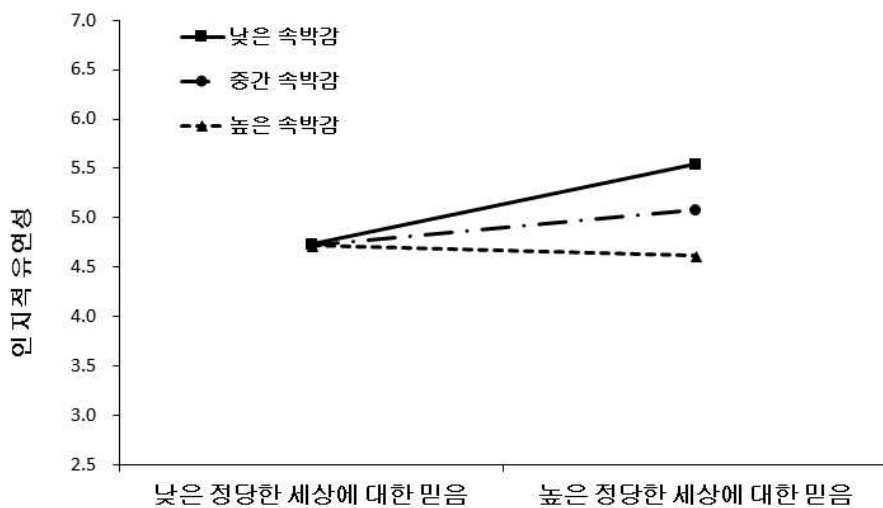


그림 2. 속박감 수준에 따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과 인지적 유연성 간 관계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과 불안 간 관계를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BJW와 인지적 유연성 간 관계를 속박감이 조절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속박감의 조절효과가 BJW와 불안 간 관계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JW와 불안은 부적의 관계에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를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없고, 불공정하며, 불확실하고,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각한 집단에서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한 홍영오와 동료들의 연구결과(2006)나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과 BJW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국외 선행연구 결과들(Donat et al., 2016; Kamble & Dalbert, 2012; Peter et al., 2013)과 일관된 것이었다.

한편 최근 국내선행 연구들(김은하, 김수용, 2017; 김은하 외, 2017; 신혜진, 2018)이 BJW와 우울 간 관계를 탐색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불안에 초점을 두었다. 불안과 우울은 임상장면에서 공존하는 정서이지만, 상이한 인지적 기제가 내재되어 있으므로(권석만, 1996; Beck et al., 1987)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Beck과 동료들이 제안한 인지내용-특수성 가설(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에 따르면, 우울은 실패감, 상실, 자기비난 등의 인지가 원인이나 불안은 예측하지 못함, 통제력 없음에 대한 지각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권석만, 1996; 손재환, 2017; Beck et al., 1987). 본 결과를 불안에 대한 인지내용-특수성 가설에 비추어본다면, 사회가 불공정하여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을 야기함으로써 불안을 심화시켰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BJW와 불안 간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

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밝혀졌다. 그동안 BJW가 부정적인 정서(예: 화, 우울)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김은하, 김수용, 2017; 김은하, 김혜림, 2015; 정은교, 안도희, 2017; Dalbert, 2009; Furnham, 2003)는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밝힌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본 결과는 높은 수준의 BJW가 높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되며, 이어 낮은 수준의 불안과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BJW가 강한 사람이 불확실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문제해결의 통제감과 성취동기가 높았다고 보고한 초기 연구결과(Lerner, 1977) 및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사고하지 못하면 불안 수준도 높아져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김완일, 2008; 허심양, 2011; Dennis & Vander Wal, 2010; Fresco et al., 2006; Johnco et al., 2013)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의 부분 매개효과는 BJW가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을 촉진하여 인지도식을 긍정적으로 편향시킨다는 견해(Taylor & Brown, 1988)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ylor와 Brown(1988)에 따르면 타인과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상황을 긍정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게 하며 유연한 사고를 촉진한다. 반면, BJW가 낮은 사람은 당연한 상황이 부당한 처우에 의한 것이라 지각하여 수용을 거부하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경직된 방식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우울이나 불안 등 부정적 정서와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김은하, 김혜림, 2015; Dalbert,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BJW와 인지적 유연성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Dalbert(2009)는 BJW가 개인적 기질에 가깝다고 보았는데, 이는 BJW가 인지능력 발달에 선행한다는 주장(Jose, 1990)에 기초한 것이었다. 실제로 신경 심리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유연성은 전두엽의 실행기능이 발달하는 아동 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급격히 발달한다(Deák, 2003; Jurado & Roselli, 2007). 반면 BJW는

10세 이전에 내면화되는 권선징악의 내재적 정의(immanent justice)가 실현되리라는 믿음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Dalbert, 2009) 인지적 유연성에 비해 이른 시기에 형성되고 인지적 유연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BJW 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신념 체계이기 때문에(Dalbert & Stoeber, 2006; Maes & Schmitt, 2004), BJW가 인지적 유연성에 선행한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개인은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지각했다는 연구(한정숙, 최윤경, 2014)를 고려해 볼 때, 인지적 유연성이 BJW에 선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 BJW와 인지적 유연성 간 관계에서 속박감은 부적 조절효과를 보였다. 속박감이 낮을 때는 BJW와 인지적 유연성 간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속박감이 높을 때는 BJW가 증가하더라도 인지적 유연성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BJW가 강할지라도 속박감이 높으면 인지적 유연성이 촉진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속박감이 상황 통제에 대한 상실감과 관련됨(이종선 외, 2012)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내외 통제감이 BJW의 영향력을 조절한다는 선행연구들(김은하, 김수용, 2017; Dalbert, 2001)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BJW의 수준에 상관없이, 속박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인지적 유연성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속박감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관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할 개인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발견된다(Gilbert et al., 2004). 또한, 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절박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있다고 호소하곤 한다(이종선 외, 2012, p. 885). 그러나 학습된 무력감이나 절망감과 달리, 현실탈피의 동기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사고 및 자살의 실행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이종선 외, 2012; Williams,

1997). 사회와 타인이 정당하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속박감이 높을 경우, 인지적 유연성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결과는 이러한 속박감의 부정적 영향력이 강력함을 시사한다.

넷째, BJW와 불안의 관계에서 속박감에 의해 조절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높은 수준의 BJW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어 낮은 수준의 불안과 연결되는데, 이러한 간접효과가 속박감이 높을 경우에는 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BJW의 순기능을 조절하여 부정정서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BJW가 약할지라도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보다 유연하고 진취적인 문제 대처 양식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취약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김은하, 김혜림, 2015; Dalbert, 2001)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속박감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 예컨대 내적 속박감이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불안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천숙희(2012)의 연구나 외적속박감과 대학생의 불안 간에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들(이종선 외, 2012; Gilbert et al., 2002)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을 위한 실제적 함의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 및 주변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관적 신뢰가 불안의 예방과 완화에 중요하다고 밝혀진 만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 내담자 상담 시, 학교와 가정, 대인관계, 사회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공정성(예: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지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BJW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습득될 수 있으므로(정은교, 안도희, 2017),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

교에서 교수-학생 관계, 학점 취득, 학사제도 등을 통해 자신의 노력에 따라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혜진, 2018).

둘째, 대학생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BJW와 더불어 인지적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BJW는 단기간에 쉽게 변하기 어려운 비교적 안정적인 특질(Khera et al., 2014; Lucas et al., 2007)인 반면, 인지적 유연성은 후천적으로 학습이 가능하여 변화가 용이하다(Dennis & Vander Wal,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재해석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자동적 사고 기록지 작성과 같은 인지행동 치료가 부정적인 인지적 편향의 균형을 회복시킴으로써 인지적 유연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이현예, 조현주, 2016; 조성연, 조한익, 2017; Dennis & Vander Wal, 2010; Johnco et al., 2013). 실제로, 불안과 걱정의 정서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추상적 사고를 하며 두려움에 직면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한 결과, 두려움을 구체화시키고 대안적 사고를 생성해내면서 걱정의 수준도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신여운, 현명호, 2004). 또한, 마음챙김(mindfulness)훈련, 수용전념치료(ACT)도 경험의 회피와 사고의 경직성을 감소시켜 인지적 유연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다(조성연, 조한익, 2017; Watkins, Mullan, Wingrove, Rimes, Steiner, Bathurst, & Scott, 2011).

셋째, 지각된 속박감의 감소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앞서 밝혔듯이, 한국 대학생들은 지속되는 취업난과 학업경쟁 속에 상당한 수준의 속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취업 및 사회진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함을 느끼며 현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선화, 정구철, 2014). 이러한 속박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희망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활용해볼 수 있다(신선화, 정구철, 2014). 희망은 저소득층 가정이나 암 투병 등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제약을

동반한 상황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선영, 2013; 어은영, 1998), 회복탄력성은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힘으로, 두 요인 모두 신선화와 정구철(201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지각된 속박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교양 및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4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학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하위 요인들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예컨대, 속박감은 자신의 내적인 감정과 사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내적 속박감과 외부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외적 속박감으로 구분되는데, 심리적 기제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호, 홍혜영, 2016).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론적 논의에 따라 BJW가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BJW가 불안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인지적 유연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에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본 연구모형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BJW는 자신에 대한 정당함에 대한 평가(BJW-self)와 타인에 대한 정당함에 대한 평가(BJW-others)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Dalbert, 2001),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자는 개인의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후자는 타인 및 약자의 불행에 대해 오히려 당사자의 탓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Khera et al., 2014; Sutton & Douglas, 2005). 따라서 향후에는 각각의 하위 요인이 인지적 유연성 및 불안, 속박감과 어떤 관

계를 형성하는지 탐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불안 수준 및 인지적 유연성에서의 성차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조성연, 조한익, 2017), 향후 연구에서는 성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6). 우울과 불안의 관계: 유발 생활사건과 인지내용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심리과학*, 5(1), 13-38.
- 김대현 (2016). 부정적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 속박감의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임, 강민철, 이윤희 (2017). 대학생의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의 매개효과와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교육치료연구*, 9(1), 155-173.
- 김정호, 홍혜영 (2016).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내적속박감과 외적속박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391-413.
- 김완일 (2008). 자기복잡성과 인지적 유연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15-734.
-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BJW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 김은하, 김수용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5), 39-53.
- 김은하, 김혜림 (2015).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화병간의 관계: 내외통제성을 통한 BJW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8(1), 1-22.
- 박선영 (2013). 저소득층의 긍정적 정서 및 우울감과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 및 조절 역할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0, 189-214.
- 성승연, 박성현 (2008). 한국판 Shapiro 통제 척도 (K-SC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11-132.
- 손재환 (2017). 대학생의 자존감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5(2), 299-317.
- 송보라, 이기학 (2009).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관계에서의 인지적 유연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73-88.
- 신선화, 정구철 (2014).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350-360.
- 신여운, 현명호 (2004). 병리적 걱정을 하는 사람의 걱정에 대한 신념과 대처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45-63.
- 신혜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과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5), 413-437.
- 신혜원, 김은정 (2017). 부정적 완벽주의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반추와 내적 속박감의 연속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7(4), 489-506.
- 어은영 (1998). 암환자의 가족지지와 희망에 관한 연구. *임상간호연구*, 3(2), 91-117.
- 오수연, 박기환 (2014). 사후반추사고와 사회불안의 관계: 사고통제방략의 중재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61-77.
- 이소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4). 패배감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식과 속박감의 순차중다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285-303.
- 이종선, 강민철, 조현주 (2012). 외적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및 정서대처 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4), 883-905.
- 이종선, 조현주 (2012).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239-259.
- 이종택, 김범준, 최인철, 박수애 (2008). 한국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 개인 표상과 사회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23-41.
- 이현예, 조현주 (2016). 대학생의 탄력성이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147-168.
- 임선영, 권석만 (2012). 대학생의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관한 연구: 인지적 유연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261-281.
- 정서영, 송미경 (2017).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1), 61-80.
- 정은교, 안도희 (2017). 고등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과 학교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교사 정당성 경험과 교사-학생 관계의 매개효과: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31(2), 215-237.
- 조성연, 조한익 (2017). 걱정과 반추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809-842.
- 채은옥, 이영호 (2008). 위협상황에서 걱정많은 사람들의 대처과정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2), 411-427.
- 천숙희 (2012).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속박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여성간호학회지, 18(3), 223-235.
- 한정숙, 최윤경 (2017). 이혼경험자의 인지적 유연성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4(2), 217-327.
- 허심양 (2011).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29-160.
-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pp. 267-299). New York: Academic Press.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Brown, G., Steer, R. A., Eidelson, J. I., & Riskind, J. H. (1987). Differentiating anxiety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3), 179-183.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93-897.
- Borkovec, T. D., & Newman, M. G. (1998). Worry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A. S. Bellack, & M. Hersen (Series Eds.), & P. Salkovskis (Vol Eds.), *Comprehensive clinical psychology: Vol. 6. Adults: Clinical formulation and treatment*. (pp. 439-459). Oxford, England: Pergamon Press.
- Brockner, J., & Rubin, J. Z. (1985). *Entrapment in escalating conflicts: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Springer-Verlag.
- Brockner, J., Rubin, J. Z., Fine, J., Hamilton, T. P., Thomas, B., & Turetsky, B. (1982). Factors affecting entrapment in escalating conflicts: The importance of tim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6(2), 247-266.
-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New York, NY: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Dalbert, C. (2009). Belief in a just world. In M. R. Leary & R. H. Hoyle (Eds.),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pp. 288-297). New York: Guilford.

- Dalbert, C., & Stoeber, J. (2006).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and domain-specific beliefs about justice at school and in the family: A longitudinal study with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 200-207.
- Deák, G. O. (2003).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language abilities. In R. V. Kail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1*, (pp. 271-32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Dennis, J. P., & Vander Wal, J. S. (2010). Th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Instrument development and estimat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3), 241-253.
- Dixon, A. K., & Fisch, H. U. (1998). Animal models and ethological strategies for early drug-testing in humans.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23*, 345-358.
- Donat, M., Peter, F., Dalbert, C., & Kamble, S. V. (2016). The meaning of students'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for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chool-specific well-being. *Social Justice Research, 29*(4), 73-102.
- Ellis, A. (2001). *Feeling better, getting better, and staying better*. CA: Impact Publishers.
- Francazio, S. K. & Flessner, C. A. (2015) Cognitive flexibility differentiates young adults exhibiting obsessive-compulsive behaviors from controls. *Psychiatry Research, 228*(2), 185-190.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00-319.
- Fresco, D. M., Williams, N. L. & Nugent, N. R. (2006). Flexibility and negative affect: Examining the associations of explanatory flexibility and coping flexibility to each other and to depression and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2), 201-210.
-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795-817.
- Gilbert, P. (2001). Depression and stress: A biopsychosocial exploration of evolved functions and mechanis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Biology of Stress, 4*, 121-135.
- Gilbert, P., & Allan, S. (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ogical Medicine, 28*(3), 585-598.
- Gilbert, P., Allan, S., Brough, S., Melley, S., & Miles, J. N. V. (2002). Relationship of anhedonia and anxiety to social rank, defeat, and entrap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1*, 141-151.
- Guilbert, P., Cheung, M., Irons, C., & McEwan, K. (2005). An exploration into depression-focused and anger-focused ruminat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in a student population.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3*(3), 273-283.
- Gilbert, P., Gilbert, J., & Irons, C. (2004). Life events, entrapments and arrested anger in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9*(1-3), 149-160.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ildebrandt, L. K., McCall, C., Engen, H. G., & Singer, T. (2016). Cognitive flexibility, heart rate variability, and resilience predict fine-grained regulation of arousal during prolonged threat. *Psychophysiology, 53*, 880-890.
- Johnco, C., Wuthrich, V. M., & Rapee, R. M. (2013). The role of cognitive flexibility in cognitive restructuring skill acquisition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7*(6),

- 576-584.
- Jose, P. E. (1990). Just world reasoning in children's immanent justice judgments. *Child Development, 61*, 1024-1033.
- Jurado M. B., & Rosselli M. (2007). The elusive nature of executive functions: A review of our current understanding. *Neuropsychology Review, 17*(3), 213-233.
- Kamble, S. V., & Dalbert, C. (2012). Belief in a just world and wellbeing in India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7*(4), 269-278.
- Kendler, K. S., Hettema, J. M., Butera, F., Gardner, C. O., & Prescott, C. A. (2003). Life event dimensions of loss, humiliation, entrapment, and danger in the prediction of onsets of major depression and generalized anxie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8), 789-796.
- Khera, M. L., Harvey, A. J., & Callan, M. J. (2014). Beliefs in a just world, subjective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 refugees among refugee workers. *Social Justice Research, 27*(4), 432-443.
- Kwon, S-M. (1993).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Lerner, M. J. (1977). The justice movies: Some hypotheses as to its origins and forms. *Journal of Personality, 45*, 1-52.
- Levi, A. (1982). *Escalating commitment and risk taking in dynamic decision behavior*. Unpublished manuscript, Yale University.
- Lucas, T. (2009). Justifying outcomes versus processes: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as predictor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Current Psychology, 28*(4), 249-265.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Maes, J., & Schmitt, M. (2004). Belief in a just world and its correlates in different age groups. In C. Dalbert & H. Sallay (Eds.), *The justice motive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Origins and consequences* (pp. 11-25). London: Routledge.
- Marques, L., Chosak, A., Simon, N. M., Phan, D., Wilhelm, S., & Pollack, M. (2010). Rating scales for anxiety disorders. In L. Baer & M. A. Blair (Eds.), *Handbook of clinical rating scales and assessment in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pp. 37-72). New York: Humana Press.
- Martin, M. M., & Rubin, R. B. (1995). A new measure of cognitive flexibility. *Psychological Reports, 76*(2), 623-626.
- Peter, F., Dalbert, C., Kloeckner, N., & Radant, M. (2013).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experience of teacher justice, and school distress in different class contex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8*(4), 1221-1235.
- Rasmussen, S. A., Fraser, L., Gotz, M., MacHale, A., Mackie, R., & Masterton, G. (2010). Elaborating the cry of pain model of suicidality: Testing a psychological model in a sample of first-time and repeat self-harm pati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1), 15-30.
- Sloman, L. (2000). How the involuntary defeat strategy relates to depression. In L. Sloman & P. Gilbert (Eds.), *Subordination and defeat: An evolutionary approach to mood disorders and their therapy?* (pp. 47-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Lushene, R., Vagg, P. R. & Jacobs, G. A.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alo Alto.
- Sutton, R., & Douglas, K. (2005). Justice for all, or

- just for me? More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the self-other distinction in just-world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3), 637-645.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2), 193-210.
- Taylor, P. J., Gooding, P., Wood, A. M., & Tarrier, N. (2011).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in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e. *Psychological Bulletin*, 137(3), 391-420.
- Teger, A. I. (1980). *Too much invested to quit*. New York: Pergamon Press.
- Teismann, T., & Forkmann, T. (2017). Rumination, entrapment and suicide ideation: A mediational model.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4, 226-234.
- Thurston, B. J., & Runco, M. A. (1999). Flexibility, In Runco, M. A. & Pritzker, S. R. (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Vol. 1 (pp. 729-73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Watkins, E. R., Mullan, E., Wingrove, J., Rimes, K., Steiner, H., Bathurst, N., & Scott, J. (2011). Rumination-focus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residual depression: Phase II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9(4), 317-322.
- Williams, J. M. G. (1997). *Cry of pain: Understanding suicide and self-harm*.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 Zuroff, D. C., Fournier, M. A., & Moskowitz, D. S. (2007). Depression, perceived inferiority, and interpersonal behavior: Evidence for the involuntary defeat strate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7), 751-778.

1 차원고접수 : 2018. 03. 19.

수정원고접수 : 2018. 06. 26.

최종게재결정 : 2018. 08. 15.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and anxiety: Testing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entrapment

Hyun-Ju Cho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lsan University

Hae-Jin Shin

School of Liberal Arts,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flexibility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BJW) and anxiety, while investigating whether entrapment moderated the effects of BJW on cognitive flexibility. To collect data, 367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sangnam-do, South Korea completed a questionnaire regarding BJW, anxiety, cognitive flexibility, and entrapment. Results showed that cognitive flexibil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JW and anxiety. In addition, entrapment moderated nega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BJW and cognitive flexibility. That is, as entrapment increased, the positive effect of BJW on cognitive flexibility decreased. Lastly, the interaction of BJW and entrapment influenced anxiety through cognitive flexib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belief in a just world, anxiety, cognitive flexibility, entrapment, moderated mediation model